

여야, 내년 예산안 놓고 '사생결단' 대치

국힘 "날치기예산 횡포 책임져야...국민 불모 인질극" 민주당 '정부 예비비, 검찰·경찰특활비 감액 문제' 반박 우원식 "본회의 상정 보류...10일까지 합의안" 압박

여야가 2일 내년도 예산안을 놓고 서로 한 치 양보 없는 '사생결단'식 대치를 이어갔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야당의 감액 예산안에 대해 "국정 마비의 목적만 보이고 디테일로 들어가 보면 앞뒤가 안 맞는다"며 "민주당의 시각은 국민들과 너무 동떨어져 있고, 국민을 불모로 인질극을 하겠다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한 대표는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주도한 '인공지능(AI) 기본법'에 적극 동의했지만 AI 생태계를 위해 필요한 안정적 전력 공급의 새 희망인 소형모듈 원자로(SMR) 연구개발(R&D) 예산은 대폭 삭감하고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비효율은 방지하면서 지역화폐 비효율은 더욱 키우려 한다"고 주장했다.

추경호 원내대표도 "감액 예산안이 상정되고 탄핵소추안이 보고되면 다수당의 이성 잃은 폭주가 민생과 민주주의를 파괴한 날로 헌정사에 길이 남게 될 것"이라며 "정치 보복성 예산 삭감으로 민생 고통과 치안 공백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되고 재난 재해에 대한 적기 대응에 많은 어려움이 초래될 것으로 우려된다"고 비판했다.

그러나 민주당은 감액 예산안을 비판한 여당에 날을 세웠다. 이재명 대표는 5조원에 가까운 정부의 예비비를, 다른 최고위원들은 검찰·경찰의 특수활동비 감액 문제를 짚었다.

이 대표는 대구시당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코로나19 이후 연간 사용된 예비비가 1조5천억원을 넘은 예가 없다고 하는데 무려 5조원 가까운 예비비를 편성하냐"라며 "이거 아무 때



본회의 개의를 하는 우원식 의장 우원식 국회의장이 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연합뉴스

나 아무 용도로 꺼내 쓰겠다는 거 아닌가"라고 비판했다.

김민석 최고위원은 "감찰 썸짓돈이 없다고 민생이 마비되냐"라며 "권력기관 썸짓돈 말고는 예비비도 예년보다

많은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한준호 최고위원도 회의에서 "특활 비성 예산을 삭감한다고 해서 국민께 무슨 피해가 가냐"라며 "국회의 예산 심의를 겁박하고 정부의 책임도 국회에

전가하는 정권의 행태가 과연 헌법에 부합한 것인가"라고 되물었다.

전현희 최고위원은 "민주당은 경제를 선순환시키는 지역사랑상품권 예산과 고교 무상교육 국비 지원을 위한 민

생 예산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여야의 대립이 팽팽한 가운데 우원식 국회의장은 이날 "예산안 본회의 상정을 전격 보류한다"며 "오는 10일까지 여야가 합의안을 만들어오라"고 압박했다.

우 의장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어 "고심 끝에 오늘 본회의에 예산안을 상정하지 않기로 했다"며 "여야 정당이 엄중히 요청한다. 정기국회가 끝나는 10일까지 예산안을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 의장은 이날 예산안 상정을 하지 않는 이유를 두고 "현재로서는 예산안 처리가 국민께 희망을 드리기 어렵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민생과 경제를 안정시키고 경제적 약자와 취약계층이 희망을 품는 예산을 만들 책임이 국회에 있다"며 "법정 기한을 지키는 것 못지않게 이는 막중한 책임"이라고 밝혔다.

우 의장은 정부를 향해서도 "국회의 예산 심의권을 얼마나 존중하고 충실히 뒷받침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정부의 자성과 태도 전환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김진수 기자

국힘, 특검법 재표결 앞두고 '이상 기류'

한동훈, 10일 본회의 앞두고 "지켜보자" 밝혀 여당 이탈표 규모 측각...재의결 가능성 낮아

오는 10일로 예정된 국회 본회의의 '김건희 특검법' 재표결을 놓고 국민의힘 내부에서 '이상 기류'가 감지되고 있다.

2일 국회 등에 따르면 최근 한 대표는 가까운 인사들에게 10일 국회 본회의에서 재표결될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 "지켜보자"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앞서 지난 10월 민주당이 특검법을 발의했을 당시 반대 입장을 명확히 한 것과 달라진 것이다.

친한계는 당원 계시관 논란의 최종 목적을 '한동훈 끌어내리기'라고 보고 있다. 친한계 일각에선 친운계를 중심으로 논란이 확산하는 것을 고려하면 대통령실 의중이 실린 것 아니냐는 주장도 나온다.

한 대표가 소속 의원들에게 일일이 전화를 걸어 부결을 호소했던 지난달

두 번째 특검법 재표결 당시 여당 이탈표가 최소 4표가 나온 것으로 추정되는 데 한 대표가 유보적 입장을 고수할 경우 이번 이탈표 규모는 더 늘 수 있다는 전망이 가능하다. 다만, 한 대표가 특검법에 찬성한다는 입장을 밝히거나 특검법이 실제 재의결될 가능성은 현재로서는 낮은 게 여권의 대체적인 시각이다.

이런 가운데 국민의힘은 이날 민주당이 추진 중인 '채상병 순직 사건' 진상 규명을 위한 국회 국정조사에 참여하기로 결정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이날 비공개 의원 총회 후 기자들과 만나 "채상병 국정조사에 참여할 예정"이라며 "오늘 중으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위원 명단을 국회 의정실에 통보할 것"이라고 밝혔다.

추 원내대표는 "각종 청문회와 국정조사 등을 통해 국회가 진상규명 활동

을 했지만 민주당이 정쟁용으로 이용하기 위해 국정조사를 시도한다"며 "당초에 그런 이유로 부정적인 견해였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수사 결과가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국정조사 불참을 진지하게 검토했지만 민주당의 단독 국정조사 운영이 또 다른 기형적인 형태로 운영될 수 있기 때문에 철저한 진상규명이라는 국회의원의 노력에 국민의힘이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추 원내대표는 "채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돼있는 여러 문제점을 국정조사를 통해 낱알이 밝히며 국민에게 설명해 드리고 국민이 이해할 기회를 가져야겠다는 취지에서 국정 조사를 참여하게 됐다"고 강조했다.

특위는 국회 의석 비율을 반영해 민주당 10명, 국민의힘 7명, 비교섭단체 1명으로 구성된다. 민주당은 지난달 27일 국정조사 위원 명단을 의정실에 제출했다. /김진수 기자

주철현 발의 '노인복지법 개정안' 통과

경로당 부식 구입비 지원 근거 마련

더불어민주당 주철현 국회의원(여수갑·사진)은 2일 "국회 본회의에서 지난 총선 3호 공약인 '경로당 주 5일 점심 제공'을 뒷받침할 '노인복지법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경로당에 대한 국가 예산 지원 항목으로 부식 구입비를 추가하는 내용이다. 현행 '노인복지법'은 경로당에



대해 양곡관리비와 냉난방비만 보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에 더해 반찬 등 부식 구입비용도 국가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앞서 주 의원은 지난 총선에서 '어르신 복지 강화와 어르신 일자리 정책'을 3호 공약으로 제시하며 '경로당 주 5일 점심식사 제공'을 약속했

다. 지난 6월에는 공약 실천을 위해 '노인복지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주 의원은 지난달 2일 민주당 최고위원회에서 "윤석열 정권이 어르신 복지에는 스크루지 영감보다 인색하다"며 강도 높게 비판한 바 있다.

주 의원은 개정안 통과 후 "초고령 사회 진입이 예정된 상황에서 어르신들에게 따뜻한 밥 한 끼 제공해 드리는 것은 국가가 해야 할 최소한의 의무"라며 "대한민국 산업화를 위해 젊음을 바친 어르신 복지 향상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진수 기자

감사원장·중앙지검장 탄핵소추안 내일 표결

조상원·최재훈 검사 탄핵소추안도 본회의 보고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최재훈 감사원장 탄핵소추안이 2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다.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조상원 서울중앙지검 4차장, 최재훈 서울중앙지검 반부패2부장의 탄핵소추안도 본회의에 함께 보고됐다.

국회법상 탄핵소추안은 본회의 보고 24시간 후, 72시간 이내에 표결이 이뤄져야 하므로 최 원장과 이 지검장 등 서울중앙지검 지휘라인 검사 3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은 오는 4일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쳐진다.

앞서 민주당은 대통령 집무실 및 관

저 이전 감사가 부실하게 이뤄졌다며 최 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

국회에서 감사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발의돼 본회의의 보고가 이뤄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또한 민주당은 검찰이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추가조작 연루 의혹에 불기소 처분을 내린 것과 관련, 이 지검장 등 검사 3명이 의혹을 제대로 수사하지 않았다며 이들에 대한 탄핵소추안도 발의했다. /김진수 기자

방수제 · 바닥재 · 환화제 · 천연 황토 코팅제 건물 보수제 전문 생산업체

아직까지 방수로 고민하십니까? 기술이 필요없습니다.

방수! 바닥! 직접 공사하세요!

적용현장 및 시공범위

옥상, 외벽, 지하실, 공장바닥, 주차장, 흙집, 물탱크, 양어장, 수영장, 화장실 타일, 기와집, 내구성 및 평활성을 요구하는 현장, 기타 방수를 요하는 모든 건축물

생산 품목

[DK-301] 강력접착 도막 방수제 / 드림탄²
 [DK-303] 상도코팅방수제(녹색, 회색)셀프탄
 [DK-305] 무색침투도막방수제 / 드림데칼³
 [DK-307] 균열 보수제 / 다막스
 [DK-306] 수용성 투명 발수제 / 탑코팅
 [DK-308] 천연황토코팅제 / 황토리
 [DK-5000] 광택증진 & 오염방지코팅제 / 오염스톱

특징

- 빗물은 막고 습기는 내보낸다
- 기술이 필요없다
- 숨을 쉬기 때문에 들뜨지 않는다
- 경제적이다
- 무독성 무기질 친환경 방수제다
- 습윤상태에서도 할 수 있다
- 미끄럼, 방지기능을 한다
- 옥실 및 화장실 타일을 뜯지 않고도 할 수 있다
- 특히 인증 신기술 공법이다
- 소비자가 인정했다

※전화 문의시 방수·바닥재 관련 책자를 보내 드립니다. (제품 구입시 시외 지역은 택배로 보내드립니다.)

△유사품에 주의하세요

시중에 검증받지 않은 방수제품들이 난무하여 소비자들을 현혹하여 판매 및 시공하는 피해사례가 있다고 있습니다. 드림케미칼 코리아는 특허 인증 품질 보증업체입니다.

특허청

환경을 생각하는 기업

드림케미칼코리아
DREAM CHEMICAL KOREA

전국 대리점 및 판매점 모집(무담보, 무보증)

문의 : 080-362-7788

www.dreamchemicalkorea.com